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에 관한 연구

이현구* · 박길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전통적인 성 관념은 남자는 남성 성역할을, 여자는 여성 성역할을 가져야 바람직하다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강요되는 사고는 아닌 듯 하다. 복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라고 여겨왔던 많은 아이템들이 이제는 상호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이미지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 따라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라는 의미는 아주 다를 수 있다. 과거에 남성적이라고 느꼈던 이미지, 여성적이라고 느꼈던 이미지가 현재 그리고 먼 미래에는 또 다르게 변할 것이다.

현대에 있어 남성복과 여성복의 구분은 과거 어느 경우보다 더 불안정한 문제가 되었다. 현대 복식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성별(gender) 차원에서 남성 복식의 여성적 이미지와 여성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복식에서 성과 관련되어 그 이미지가 서로 교차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들의 개념을 규명하고 그 출현 배경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니섹스라는 용어의 등장 이래로 복식에서 성과 관련되어 그 이미지가 서로 교차되는 여러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 용어의 의미는 많은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용어들은 남녀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각각 약간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니섹스(unisex)는 청바지, 티셔츠처럼 남녀가 함께 입는 스타일의 옷을 가리키며 현재에는 캐주얼 웨어로 정착되었다.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특성과 순수한 아름다움 및 멋을 인정해 남성과 여성 모두 남성 복식의 요소와 여성 복식의 요소를 혼합하여 입는 스타일이다.

젠더리스(genderless)는 성의 구별이 아예 없는 스타일로 1990년대 후반 국내 브랜드에서는 같은 소재와 디자인으로 남성·여성복을 만들면서 젠더리스 스타일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국내 패션업계에서 제시하는 젠더리스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복식 디자인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남성적·여성적 이미지를 느끼도록 했던 의복형식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이는 새로운 형태일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그 등장배경을 뉴 밀레니엄적인 문화 속성과 호모 섹슈얼리즘의 두 요인으로 보았다.

2천년대 뉴 밀레니엄적인 문화 속성 중의 하나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인데, 성(性)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만큼 이 사실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도 없다. 패션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특히 두드러진다. 또 동성애적 지향을 뜻하는 패션에서의 호모 섹슈얼리즘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여자같은 남자, 남자같은 여자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남성복과 여성복의 트렌드는 이제 거의 같아져서 따로 트렌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예상할 수 없었던 현상이었으며, 따라서 Rudi Gernreich이나 Anne Hollander의 예 언처럼 앞으로의 패션에서는 성의 관념없이 의복은 단지 하나의 아이템으로 사이즈에 있어서의 차이만을 보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경향을 토대로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는 연구로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내 패션업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젠더리스의 개념이 아직은 미흡하며 최근에 국내의 의류광고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실제 지배적인 복식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복식 현상에 대해 예측 가능한 하나의 현상으로써 제시한 연구이다.